

총 2045호

www.manmin.org

2022년 1월 2일

신년감사주일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 재 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2년도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마가복음 9:23)
- 2) 거룩한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태복음 21:12~13)
-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김요한 안성철 조대희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석 장성식 정현진 이몽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김성덕 노영진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영호, 한진범, 김은주, 김중훈, 폴 무사피리 날완고(협력), 자끄 네마 시카텐다(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정연, 온두라스 에스태반 한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송 캐 나 다: 이성일 영 국: 제인 음플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판: 초찬형, 성 속,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상휘 몽 골: 발저릭 푸레브, 안흐바야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지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월슨 존 길, 타리크 자이 중 동: 보나 시투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여 부목사/	이미경 이수진 최영자 이미영 이성숙	원로 장로/	이정호
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	장 로/	빈성건 이규동 이동립 최종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현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이종섭 오세영 박영준 이기세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김영식 박경준 최윤희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김규식 송왕국 김진홍 송석길 이강준 장영규 이익석 임영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홍용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박영갑 김봉완 홍명일 김준호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태봉 채윤석 이수현 김석환 진교섭 황병현 박성준 최병술 이덕행 최희수 허은범 오광성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정성구 이강현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윤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열 손영라 윤후열 박중용 송영현 이성의 정영호 정용필
협동 목사/	문신현	명예 장로/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이교순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중 최신일 한병용 나중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영호 배철호 김영남 서상기 문경진 박진무
여 전도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황금란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최시은 김진주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채
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중용 나 사 렛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들 성가대: 서승원 닛시오케스트라: 김한구
기도원 교역자/	김영석3	반 주 자/	민영훈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지교회 교역자/	문태규 정철수 이행업 박흥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재수 서진범 김창숙 박종대 황병덕 오환준 김해경 차진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정오 김상휘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13장 1절	다 같 이
* 성서교독 67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248장	다 같 이
기 도	최종태 장로
성경봉독 요한복음 3:5~7	사 회 자
찬 양	축복/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2차 영훈육(10)	당회장님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199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사 회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장성식 목사

대표기도	이영인 전도사
성경봉독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사회자
찬양	나의 가는 길/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서승원 집사
설교	거룩한 자녀(신년 기도제목②)/ 이수진 목사(당회장 직무대행)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조혁희 목사

대표기도	권영남 전도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5:38/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새롭게 하소서/ 이미영 목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조대희 목사

대표기도	김진홍 장로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2:18~29/ 사회자
찬양	임마누엘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19)-두아디라 교회③/ 당회장님

2-8회 15차 작정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님 원장
기간/ 1월 3일(월) ~ 1월 23일(주일)
주제/ 2022년 기도제목, 은사집회를 위해

새벽 예배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자문에 협조하기 위하여 추후 공지 시 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임학영 목사	이미영 목사
주일 저녁예배	박광현 목사	장정미 전도사
수요 예배	문신현 목사	오인숙 전도사
금요 철야예배	정진영 목사	김상휘 목사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2차 영혼육 (9)
 본 문 : 고린도후서 10:3~6

오늘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에 대해, 또한 영혼육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랜 세월 “나는 누구인가” 또한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궁구하며 철학적인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 “사후 세계”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며 여러 상상과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신 대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한다 해도 이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는 답을 들을 때라야 이런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육의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은 사람의 혼에 대해 배웠습니다. 혼이란, “사람의 두뇌에 있는 기억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기억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재생하고 활용하는 생각”을 다 포함하여 총칭하는 용어라 했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혼의 작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진리로 해야 한다 했지요.

다음은 영에 대해 배울 차례인데, 그보다 앞서 참고적으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람과 짐승의 차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등한 생물부터 시작해서 기능과 구조가 복잡하고 고등생물로 진화가 되었고, 결국 사람으로 진화되어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영혼육에 대해 알게 되면, 이런 설명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시작이 다르며, 구성 또한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은 사람의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고, 장막 집과 같습니다. 육이 썩어져 없어진다 해도 영은 소멸되지 않으며, 혼도 영과 결합되어서 그대로 남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실 때에 사람처럼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이

아니므로 짐승에게는 영이 없고, 혼과 육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기나 새, 육지에 사는 짐승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머리 속에 뇌가 있고, 태어나서부터 그 안에 입력시킨 지식들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결국 죽어서 육이 썩으면 혼도 소멸됩니다. 곧 뇌세포가 썩어 없어지므로 그 안에 담겼던 기억들도 소멸되고 더 이상 혼의 작용도 일어나지 않으며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여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분명히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던 짐승이 죽으면 너무나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죽은 짐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더 많지요.

가령, 농촌에서 밭을 가는 소의 입장에서 볼 때 죽고 나면 더 이상 매 맞지 않아도 되고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에 큰 손실을 입게 되므로 슬퍼하는 것이지요. 애완용 개나 고양이도 죽으면 그들 편에서는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없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정을 주고 사랑하던 존재가 없어지므로 허전하고 서운하니 슬퍼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짐승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쌍히 여깁니다.

물론 짐승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혼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인이 애정을 쏟아 주면 이를 기억하고 주인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보여 주기도 하고 즐거움이나 분노나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짐승이 하는 혼의 작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짐승은 태어나면 본능에 따라 생존하는 법을 배우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때가 되면 번식하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본능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혼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거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신을 경외하거나 종교를 찾는 경우도 없지요.

물론 짐승도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하면 도망가기도 하고 위험을 느끼면 저항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위험을 느끼는 순간에만 두려워하는 것이고 눈앞에서 위험이 사라지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금세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짐승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혼의 작용을 합니다. 단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명을 발달시킬 수도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민하므로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반응도 짐승과는 다릅니다.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죽음이라는 자체를 두려워하며, 사후 세계에 대해 더욱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 아닌데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찌하든 피해 보려고 하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뜻밖에 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입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전까지 정상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하루 이틀 사이에 초췌해지고 병자의 모습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 절망감과 두려움 때문이지요.

사람이 이처럼 짐승보다 뛰어난 혼의 작용을 할 수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혼과 육뿐만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성 속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 느끼며, 주를 믿는 사람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깊은 마음속에서는 신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느끼는 것이지요.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이 선한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하늘을 섬기며 선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또한 머리로 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도 본성 속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사람들은 죽음을 오히려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온갖 고통 속에 구차하게 살고 있다면 차라리 죽어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입으로는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막상 죽을 상황이 되면 어찌하든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물론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자포자기하거나 마음과 생각을 악한 영에게 뺏겨 버리는 경우에는 그런 두려움조차 잊어버리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아무리 신을 부인하는 사람이라 해도 죽음에 직면할 때 본성 속의 두려움으로 고통받으며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하지요.

한 예로,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유명한 무신론자로서 50년 내에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고 장담하며 많은 무신론 책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던 그가 임종할 때가 되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시다. 나는 두려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했다고 하지요. 머리로는 하나님과 천국, 지옥을 부정한다 해도 임종이 가까우니 어떤 것이 참인지를 본성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글을 써 온 볼테르의 집은 그가 죽은 지 20년 후에 성서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외국어 성경까지 출판하는 본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

이 부인하거나 대적하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날까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지요.

2.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어야

때때로 사람들은 짐승이 원한을 품고 죽으면 그 혼이 사람에게 복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짐승은 육의 죽음과 함께 혼도 소멸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난다 해도 혼과 육으로 된 짐승이 진화되어 영을 가진 존재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고, 그래서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의 영혼육은 아담이 처음 지음받은 당시의 영혼육과 같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영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영이 죽고 말았는데, 이는 영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되었고, 세월이 지나 수명이 다하면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므로 영적인 죽음을 당한다는 뜻이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 영이 죽어서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없게 되자, 이제는 혼이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며 육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이 주인이 되자, 세월이 지남에 따라 사람은 점점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리 가운데 거하며 혼과 육을 진리로 이끌어 갔지만, 혼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본능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갔기 때문입니다(전 3:18). 이렇게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짐승 같은 인생들은 그 영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되찾아야 하는데 곧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부귀와 명예, 권세를 한 몸에 얻는다 해도 정작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삶은 너무나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눅 9:25). 차라리 짐승들처럼 소멸되더라도 하면 낫겠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참혹한 불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잠시 잠깐 살아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내세에 소망을 두고 남은 시간을 더욱 값지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신속하게 죄를 버리고 온전히 성결되어 장차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과 새롭게 하소서

읽을 말씀 / 누가복음 5:38

외울 말씀 / 에베소서 5:9

참고 말씀 / 로마서 2:13

교육 내용 / 새해를 맞아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게 한다.

대부분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새롭게 마음을 결단합니다. 특히 성결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되리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힘쓰며,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이상 읽고 성구를 외우며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자 하지요. 이렇게 연초에 결심하고 고백한 것을 번개치 않으며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사람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 해도 속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속이려 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을 속였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습니다(행 5장).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지요. 하지만 욕심이 틈타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재산 중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책망합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의 종을 속이는 것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속였으므로 결국 혼이 떠나 죽고 말았지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사모하는 척하고,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 외식하지요. 그러다가 남의 눈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까지 속이게 됩니다. 자

신이 외식하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충성하는 일꾼이라고 착각하지요.

이 외에도 자기 공적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일을 추진하기도 하고, 누가 지켜볼 때는 성실하게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불성실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성함으로 진실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이란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를 편안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 희생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상대에게 많은 것을 주고 희생해 주었어도 먼저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면 빛을 받을 수 없지요.

예를 들어, 직원에게 어떤 일을 부탁했더니 열심히 일은 하는데 표정이 딱딱하고 무뎠다면 어떻게 됩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다음에 일을 부탁하기가 망설여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일을 잘해도 "섬기며 일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섭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요. 따라서 자신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까지 섬김의 기준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로 간에 얼마나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는 여러 부서 사람들이 함께 쓰는 화장실이나 복도, 계단 등의 공용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화장실이 지저분해도 '내 업무가 아니니까' 하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치 나의 일처럼 깨끗이 청소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같은 부서 안에서도 누가 아침에 일찍 와서 책상을 닦아 주는지, 쓰레기통을 비우며 청소를 도와주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지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지요.

또한 자신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업무도 아닌데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나는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많은데, 이런 사소한 일들은 업무가 적은 사람들이나 직분이 낮은 사람들이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면서 힘들어하지요.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일했다면 비록 행함으로는 섬겼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을 해서 결과만 내면 인정을 받지만, 주 안에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행할 때 상급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받는 만큼 자기의 업무만 하면 되지만, 주 안에서는 보직에 해당되는 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하나님의 일이 모두 자신의 업무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씀이를 넓혀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어야 하지요.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섬기고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위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섬길 때 이 땅에서도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행함이란 ‘하나님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처음부터 진리대로만 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쉽 없이 노력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보시고 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듬어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대개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반드시 성결되리라 다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직분이 높아지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이는 진리를 지식으로만 알고 행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을 덮어 놓고 절제하므로 크게 비진리를 행하거나 화평을 깨는 일은 없습니다. 본인이 할 일은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요.

혹여 자신은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나 기도회에 습관적으로 참석하거나 자기만족해 앉아 있지는 않는지요? 그 상태가 지속되면 신앙이 정체되어 성령의 충만함이 식고, 자칫 구원받기 힘든 육체의 일까지 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첫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충성 봉사합니다. 예배나 기도회에 늦지 않기 위해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사모함으로 단숨에 달려오지요. 생명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들으며 하나라도 깨우치고 변화되기 위해 금식하며 불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멈춘다면 영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행군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진실한 행함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묵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진실한 마음과 행함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① ()해야 한다.
- ② ()이 있어야 한다.
- ③ ()이 있어야 한다.

2.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혼이 떠나 죽게 되었을까요?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부부이며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 신자이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땅을 팔아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를 전부라고 속여 사도들 앞에 내놓는다. 결국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죄로 혼이 떠나 죽게 된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70-8240-2075)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55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온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예배시간/
장 소/
문의전화/ 02-818-7102

※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예배는 없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탈리아어가 종이책으로 발간되었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가 이탈리아어로, 「깨어라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어로, 「천국(상)」이 독일어로, 「십자가의 도」가 포르투갈어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에티오피아 암하라어로, 「나의 삶 나의 신앙」이 슬로바키아어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만민뉴스 영어(709호), 중국어(584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작정 다니엘 철야가 1월 3일(월)부터 1월 23일(주일)까지 이복님 원장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2022년 기도제목, 은사집회를 위해
※ 준비 찬양은 오후 8시 40분부터 있습니다.
- 우림북/ 1월 추천도서는 「영혼육(상)」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림북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조)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도 소식

전진수 형제(1청년)/ 제45회 전국 대학생 레슬링대회 자유형 70kg급에서 2위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중국 대교구(꽃꽃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시설관리국)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1/2 일

- 00:00 - '십자가의 도 22' 이재록 목사
- 05:00 -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이수진 목사
- 17:00 - '공부 잘하는 비결 9' 이재록 목사
- 18:30 - '해가 뜨니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박형철 목사

1/3 월

- 01:00 - '요한일서 강해 41' 이수진 목사
- 07:05 - '공부 잘하는 비결 10' 이재록 목사
- 08:00 - '믿음을 척량하시니 2' 이재록 목사
- 10:20 - '십계명 10' 이재록 목사
- 13:00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3' 이재록 목사
- 19:30 - '우리 삶의 등불 108' 이재록 목사

1/4 화

- 01:00 - '감정을 제어하라 1' 이수진 목사
- 07:05 - '공부 잘하는 비결 11' 이재록 목사
- 08:00 - '믿음을 척량하시니 3' 이재록 목사
- 10:20 - '사랑 1' 이재록 목사
- 14:00 - '십자가의 도 23' 이재록 목사
- 15:30 - '선 2' 이재록 목사
- 18:00 -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수진 목사
- 19:00 - 구역공과 33

1/5 수

- 00:00 - '요한일서 강해 1' 이재록 목사
- 01:00 - '2차 영혼육 9'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1' 이수진 목사
- 06:00 - '천국 3' 이재록 목사
- 13:00 - '성령의 9가지 열매 1' 이재록 목사
- 15:30 - '선 3'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1'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120' 이재록 목사

1/6 목

- 01:00 - '마음을 하나로'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2' 이재록 목사
- 08:00 - '믿음을 척량하시니 5' 이재록 목사
- 10:20 - '사랑 3' 이재록 목사
- 13:00 - '성령의 9가지 열매 2' 이재록 목사
- 15:00 - 천지창조의 섭리 17
- 15:30 - '선 4' 이재록 목사
- 19:40 - '겉옷을 내어버리라' 이수진 목사

1/7 금

- 08:00 - '믿음을 척량하시니 6' 이재록 목사
- 12:05 - '천국 4' 이재록 목사
- 14:00 - '요한일서 강해 2' 이재록 목사
- 15:00 - 천지창조의 섭리 18
- 17:00 - '창세기 강해 3' 이재록 목사
- 21:00 - 에스토니아 연합대성회 2

1/8 토

- 07:05 - '창세기 강해 4' 이재록 목사
- 10:00 - '참된 가치' 이재록 목사
- 12:05 - '천국 5' 이재록 목사
- 16:00 - 영적인 존재들 19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824-7107 / webmaster@gcntv.org)

✦ 유튜브 GCN방송 채널 및 KT olleh tv 882번(HD채널, 별도 편성)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위성 A/S 문의 : 1577-2073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분(한국어)41번(영어)42번(불어)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분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oreaSat5 위성방송,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일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예배_ 오후 11시
다니얼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www.manmin.org
m.manmin.org
www.gcntv.org
m.gcntv.org

- Jan. 2(Sun.)

(Romans 6:23)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 Jan. 3(Mon.)

(Romans 8:6) “For the mind set on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set on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 Jan. 4(Tue.)

(Romans 8:7) “Because the mind set on the flesh is hostile toward God; for it does not subject itself to the law of God, for it is not even able to do so.”

- Jan. 5(Wed.)

(Romans 8:13) “For if you are living according to the flesh, you must die; but if by the Spirit you are putting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 Jan. 6(Thu.)

(Romans 8:16)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children of God.”

- Jan. 7(Fri.)

(Romans 8:18) “For I consider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that is to be revealed to us.”

- Jan. 8(Sat.)

(Romans 8:26) “In the same way the Spirit also helps our weakness; for we do not know how to pray as we should,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ings too deep for words;”

금주의 성경구절

1월 2일(주일)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1월 3일(월)
(롬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월 4일(화)
(롬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1월 5일(수)
(롬 8: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월 6일(목)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월 7일(금)
(롬 8: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1월 8일(토)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이재록 목사 간증 후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육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교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킴서
깨어나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임문편 1
내가 사행하니라/ 임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임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실천편 2
권 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홉마 나리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리에게 보내니라/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제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_ 2_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_ 3_ 예배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_ 4_ 기도편
치료하는 영약/ _ 5_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_ 6_ 심계경편
참된 복을 좇는 자/ _ 7_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_ 8_ 열재앙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자혜의 샘/ 잠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네딕도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자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맑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_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갈웃을 내어 버리라/ _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_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간추었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_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_ 3
하나님은...!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길질리어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화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오
하나님의 법도/ 심계경
성령의 열매를 맺어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위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장!
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4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4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2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30	3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4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3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4성전

※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